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자, 그의 삶의 기쁨과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아브라함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확인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더 큰 축복과 약속을 주시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이미 그 자리에 준비된 은혜와 길을 마련해 두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각오로 모리아 산에 올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준비하신 숫양을 보며 더 깊은 믿음과 헌신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모리아 산과 같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상에서 진정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 브엘세바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리아 산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서교독		44번 시100편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91장	다	같	이
기	도		1부	이흥룡집사	
			2부	김일남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16:30-32	인	도	자
찬	양	주여 우릴 회복시켜 주소서	성	가	대
설	교	밤중에 부른 찬송	박	근	상
기	도		인	도	자
찬	송	182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박	근	상

■ 금주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16:31.32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이효정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72) 6:15. 요4:32-38-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9)
찬송/ 505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여호수아
*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한 신발’(9)
- 3.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9)

11월 계획.일정표

- 9일(주) 중고등부 친구초청예배
- 10일(월) 총회 군선교위원회 총회
- 11일(화) 노회 정책회의
- 14일(금) 밤기도회
- 16일(주) 추수감사절
- 16일(주) 온세대연합예배. 소그룹의 날
- 20일(목) 대덕구기독교협의회 야유회
- 25일(화) 증경총회장회 간담회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종기 오종수	이흥룡	김희중 천영숙/결혼감사
	2층 김현주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다음주	1층 오종화 박현규	윤태영	추수감사절/교회
	2층 김현주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청소담당:2,3층 이번주(11,14) 6구역(김춘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1,21) 7구역(김순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13장 8절 제 목 -우리가 진빛이 얼마인가	활동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감사카드만들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최정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13장 8절 제 목 -우리가 진 빛이 얼마인가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2.다음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온세대연합예배로 예배합니다.3.새소식반 놀러 오세요. 토요일 오후 3시 4층 유아부실 4.11월 한달 감사프로젝트합니다. 매일 수첩에 감사한 것 한 개 이상 적고 시편 23편 암송하기.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백가는 자매 기도자 -김다연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요한복음 3장 16절 제 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2.11월부터 예배후에 성탄연습이 있습니다. 3.11/13(목)은 수능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4.11/16(주일)은 11시 본당에서 온세대연합예배와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백지는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이사야 13:9-15 제 목 -바벨론의 교만	1.11/15(토) 11시 청년부기도회입니다.(5층 뽕앰룸) 2.11/16(주일)은 11시 본당에서 온세대연합예배와 추수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3.예배 후 성탄 연습이 있습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교회는 왜 가는 걸까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것일까? 교회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궁금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중 가장 큰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집중하거나 내면의 평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외롭거나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큰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의 약점이나 고민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관계는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깊은 상처들과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안에서만 겪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세상에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가면 얻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큰 것이 마음에 평안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한 것들이 가지런히 정돈이 되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삶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돼요.

예수님과 만남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교회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다시 찾아주는 나침반 같은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롭고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환영하는 곳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가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 가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공동체를 통해 따뜻함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사랑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곳입니다. 서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도 나는 곳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이대로 살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교회로 인도하는 나침반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단 교회의 문턱을 넘어와서 앉아보세요.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해도 괜찮고, 기도에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질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 궁금하거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줄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경험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기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새 540)

Focus :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이는 그분을 따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여후수아 2:8~14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후,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며 약속의 땅 입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요단강 서쪽(가나안)에 위치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강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략적 거점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곳을 살펴 보도록 지시합니다.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위해 기생의 집에 머물렀다가, 당국의 추적을 당합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추적당하는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 주고는 그들을 돕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나요?(8~11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나요? 그 믿음은, 내가 하는 선택과 결과를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 관찰과 묵상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맹세’와 ‘증표’까지 요청하며 라합은 구원에 관해 어떤 의지를 보였나요?(12~13절)

적용과 나눔

비신자인 가족 혹은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 다지기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라합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이라면 내가 포기하고 감수할 것이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 성별, 민족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크신 능력으로도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성적’이라는 결과보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걸어온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기도합니다.

2. 독임에서 과거 히틀러 정권의 이념을 따르는 청소년 신나치 조직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신나치 조직에 빠진 아들이 진리로 돌이켜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 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 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